

기억은 지나간 시간을 온전히 보존하지 않는다. 일부는 사라지고 과장되며, 서로 다른 장소와 감정에 뒤섞여 새로운 서사로 되 돌아온다. 이지현의 개인전 《몽환서: 소란한 공백》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형되는 기억을 회화의 화면 위에 중첩한다. 전시 제목의 ‘몽환서’는 작가의 기억과 상상, 믿음과 경험이 뒤얹힌 가상의 필사본을 뜻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세 층은 서로 다른 장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처럼 펼쳐진다.

1층의 ‘스피놀라 시간’ 연작은 16세기 채색 필사본 『스피놀라 시도서』에서 발췌한 이미지와 작가의 개인적 기억을 결합해 사적인 경험이 반복을 거쳐 개인적 신화로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3층에서는 풍경 위에 겹쳐진 팝업북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가 잠재의식에서 떠오른 이미지에 임시적인 질서를 부여한다. 한편, 4층의 작품들은 밀칠지 않은 캔버스에 즉흥적인 흔적을 노출한다. 화면을 가득 채운 형상들 사이의 공백은 이름 붙지 않은 감정과 관계가 들끓는 자리다. 이지현은 “기억의 물질성을 회화의 언어로 변안”했다.



④ 이지현: 몽환서: 소란한 공백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7.1~8.15

